

제12회 취산 국제신과학심포지엄

“무한 행복하려면 ‘욕구제로’ 를 만드세요”

발 표 : 옹타 스님(미국 삼보사 주지)
발 표 : 김종순 수녀(사랑의시든수녀원 책임수녀)
주 제 : 영성과 코칭
일 시 : 2008년 9월 27일
장 소 : 연세대학교 제3공학관 대강당
주 최 : 미내시클럽

신과학과 의식세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온 '미내시클럽(www.heretnow.co.kr)' 주최 '제12회 취산(翠山) 국제신과학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모든 과학 분야를 성찰하고 그 근거를 찾아 연구하는 첨단 정보의 국제교류무장이다. 이날 행사는 코칭(Coaching·미래지향적인 삶의 기술을 통해 인간 근본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다. 연사 또한 20여 년 이상 사람과 삶의 근본변화를 위한 작업을 화두로 삼아 온 이들이다. 각 강연에서 진행되는 의식변화 수련의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영성 수련은 무엇일까? 그들로부터 삶의 변화를 모색하는 코칭의 기법을 전수받아보자.

옹타 스님
근본적인 변화-순수의식도망(頓忘)
 지금까지 지내온 내면의 갖대들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불교에서 지향하는 해탈이란 손가락을 들어 코를 스치는 것 보다 쉽습니다. 막상 손에 쥐어 주려니 어려운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문제의식은 죽음이었습니다. 입산수도 6년 만에 깨달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세상 전부가 진리 아님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유정이 부처의 지혜 덕을 구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천하가 그대로 진리인데 그것을 모르는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고 둘러보니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모두 진리라는 것과 통합니다. 도가 통하는 순간 세상의 시시비비가 느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일체가 문제될 것이 없어진 것이죠.

내가 나의 주관성을 제치고 보면 세상만사는 여여합니다. 세상 자체는 분별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파고들면 도통의 경계에 근접해 해오(解悟)합니다. 이미 의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순수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작 본인만 그 의식을 수궁하지 못합니다. 순수 의식을 유별난 체계로 해탈 이유입니다. 순수 의식 체험이 어렵다는 신념을 버리십시오.

마음속 모든 고통과 사회적인 모든 싸움의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이따금 성취의 기쁨을 주지만 거의가 좌절의 분노로 점철됩니다. 집착은 왜 하게 될까?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집착과 분노 그리고 이해부족의 어려움은 정화하는 삶이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합니다. 크나큰 해탈과 자비가 인격으로 드러난 상태를 구경각(究竟覺)이라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구경각이란 행복의 극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해탈·구원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면 끝내 그것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참으로 마음의 해탈을 원하는가? 진실로 원하는가를 날카롭게 안다는 것은 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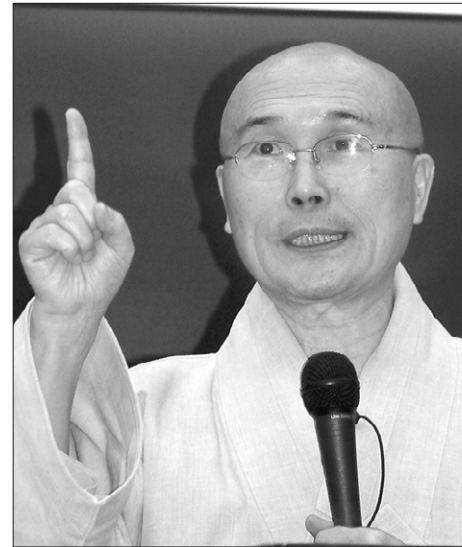
않습니다. 현재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영성은 잘 유지돼야 합니다. 지금 같고 뒤야만 후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해탈의 길을 찾았느냐? 그 길은 너무 많습니다.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진정 해탈하고 싶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애는 여러분의 지성입니다. 개념이죠. 삶의 편리한 도구인 개념은 옳지만 그 개념에 휘둘리면 옳지 않습니다. 중독된 지성의 테두리 안에서 해탈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반 곱의 사이입니다. 불행하려면 반 곱 밖에 없다고 하면 됩니다. 반 곱이 나 있다고 한다면 행복 99%가 확정됩니다.

행복의 원리는 '행복이란 소유에 비례하고 욕구에 역비례'합니다. 물 온도 99℃는 물의 물질적 한계에 머물고 나머지 1℃를 채우면 무한의 물질로 해탈됩니다. 행복이 무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욕구 제로가 되는 길 뿐입니다. 1/0은 무한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란 무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손을 치우니 허공이 보입니다. 허공마저 치워 버리십시오. 유한에서 무한으로 열리는 세상이 보입니까? 그것이 진실입니다. 곱함을 완전히 빼낸 원단이 보입니까?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계속 가감해 보십시오. 나의 원단 나의 자성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옹타 스님.



김종순 수녀.

수행은 새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뽑아서 영생밭에 심는 것 관계 풍성히 하는 것이 삶의 기술 ...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도이자 수동의 기도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한다는 면에서 수용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선하신 분’ ‘무한한 아름다운이여!’ 등과 같은 말로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관상으로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행심의 핵심은 ‘지향’입니다. 집중이 아닌 지향으로 시작되고 유지하며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함에 대해 동의하는 지향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통 속에서 조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정합니다. 이것은 지향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현존한다고 인정합니다. 단순 허락이 아닌 승복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탐색하는 여정으로 하나님 안에 나를 놓을 수 있는 여정의 지향입니다.

이 거룩한 단어를 조용히 의식 속에 불러들이며 눈을 감고 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내시며 정한 단어를 의식 속에 띄웁니다. 이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흐르는 것은 모두 사고입니다. 그 사고에 내가 끌려갔음을 알아차릴 때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옵니다. 끝

러가지 않았다면 돌아갈 필요가 없지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하나님과 신의 관계가 깊어지면 평화 되고 비워집니다. 내 안에서 불행의 뿌리가 끊어지면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자아의식은 영적 성장에서 하나의 도약 단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관성의 법칙과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면 방식대로 그대로 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집니다. 향심기도는 우리의 이러한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합니다.

수행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내뿜던 잔뿌리까지 뽑아서 영생의 밭에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저는 동경이라는 말을 그리움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진리·생명으로 표현하며 그리움의 축으로 삼습니다. 아름다운 여정이죠. 이 둘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뿌리로부터 해방하는 길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거듭 내 안의 장애를 제거하도록 돕는 하나님은 나를 확장시켜줍니다. 정려=기연숙·김진성 기자



9월 27일 열린 제12회 취산 국제신과학심포지엄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김종순 수녀

‘향심기도’-기도라는 생각도 없는 상태로 도달

향심기도(向心祈禱·centering prayer)는 신성한 독서로 생겨난 그리움 마음을 가지고 관상으로 향할 때 관상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곱됨 없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관계를 이루는 영적 여정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고 만나고 알게 되며 일치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왜 향심기도를 하는가? 1970년대 초 미국 코네티컷의 스펜서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토마스 키핑 신부의 권고 하에 윌리엄 매닝 신부가 ‘무지의 구름’이란 방법을 도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향심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참 자아 주변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진 거짓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향하려면 이 거짓 자아를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마음을 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향심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둬 즉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동(doing)이 아닌 단순히 존재(being)하려는 수용의 기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0월 15일 수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넘쳐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아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자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